

2006 학회장 간담회

과총 “학회 중장기 계획따라 체계적 육성”

글 | 편집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회장 간담회’에서 180여 명의 학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총을 향해 불만족과 고마움, 궁금증과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학회장들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격의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지원 늘리고, 요건 강화해 학회 통합 유도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 과 ‘학회학술활동정보화 지원 종합계획(안)’,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윤리 강령(안)’이다. 먼저 권광인 과총 진흥본부장의 발표로 진행된 ‘학회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한해 학회 지원 현황과 올해 계획이 보고됐다.

기본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잡혔다. ▶학회 지원 예산의 확충과 회비 확보지원 ▶학회 학술활동 지원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유사 학회 간 공동협력 촉진과 통합 유도 ▶학회 통합 정보망 구축 및 사무국 운영 지원 ▶학회 평가·지원제도의 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방향 속에서 예산을 확충하고, 유사 학회 통합을 유도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지원 예산은 2005년 38억 원, 2006년 53억 원, 2007년에는 5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06년 1천600만 원이었던 학회 당 평균 지원금을 2010년까지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원의 기준이 되는 학회 평가는 ‘정기적 기본활동’과 ‘비정기적 특별 학술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서 종합 평가한다. 이 같은 기본 계획안은 학회 운영 경험을 가진 산,학,연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린 ‘학회 육성지원 평가·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 위원회는 학회 지원



의 기본 요건 및 기준,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학회 학술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회 일손 덜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ACOMS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이옥환 과총 기획정책실장이 ‘학회학술활동정보화 지원 종합계획(안)’을 설명했다. ACOMS(학술논문자동화시스템)를 도입해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학회 논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과총과 학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 한 해 동안 이 같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모듈을 개발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ACOMS의 보급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끝으로 ‘과학기술 연구윤리 강령(안)’ 제정에 대한 발표는 이달환 과총 부설 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연구윤리(안)은 지난 1월 ‘연구윤리 규범’을 주제로 한 월례 열린 포럼 개최 이후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만든 안이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인의 기본자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연구수행에 있어 진실성의 존중 ▶성실한 협력활동 ▶연구결과의 공정한 출판 ▶연구실 문화 개선 및 연구윤리 교육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강령 준수 등이다.

과총은 회원 의견을 수렴한 안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과총에 할 말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영복 과총 회장은 “학회를 아직도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외부 인식이 많아서 학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인식을 깨뜨려 나가는 것도 과총과 각 학회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말

했다. 채 회장은 “과총의 학회 지원에 있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애
기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호되게 나무라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과총의 학회 육성·지원 및 정보화

지원 계획에 집중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는 채영복 회장을 비롯해 토론을 진행한 장호완 과총
부회장(서울대 교수)과 문유현 사무총장, 주제발표자 3인이 나
섰다. ㉔

토론 현장 일문일답

Q) 학회 지원 요건을 강화했는데 회비 납부회원
200명 이상, 국문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를 연간
40편 이상으로 하면 규모가 큰 학회는 가능하지
만 어려운 학회도 있다. 큰 학회와 작은 학회간
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A) 학회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을 현행 500명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회비 납부회원 200명 이
상으로 바꿀 계획이다. 회비 납부의 경우 큰 학
회는 많은 액수의 회비를 걷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비 납부 비율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규모가 작은 학회라도, 회비 납부 비율이 높으면
얼마든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영세
학회가 큰 학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
다. 물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때로
는 작은 학회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
에는 같은 분야에서 학회가 남발하고 불필요하
게 분할되는 것을 지양하려는 과총의 학회 지원
원칙이 담겨 있다.

Q)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회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한
다. 학회 규모가 기준에 충족되는 학회만 지원하
면 영세 학회는 고사할 수도 있다.

A) 지금까지 과총은 학회 학술활동을 서류상의
심사만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다보니 학회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서류 심사가 아
니라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학회 육성지원 평
가·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학회 운영 경험을 가
진 산학연 관계자, 과기부와 교육부 소속 공직
자, 과총과 학술진흥재단 등의 학회 지원기관 관
계자 등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학회 육성지원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평

가 자문한다.

Q) 학회가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과총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과학기술 국제화 측면에서 개최하는 국제회
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
저 국내 학회가 해외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학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다. 이 같은 대회에는 당연
히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경우는 유치
단계부터 사전 타당성을 조사해 지원할 계획이
다. 국내 학회가 국제 학술계에서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부터 지원하려고 한다. 지원 기준
은 참가국 10개국 이상, 국외 발표 논문 100편
이상이며,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이다.

Q) 학회 정보화를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
하게 되면 모든 학회의 DB가 과총의 서버 하나
로 모아지게 되는 것인가. 그럴 경우 보안 시스
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다.

A) ACOMS를 도입하면 과총과 KISTI의 시스템
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모아진 자료는 매일 백
업을 해서 보관하며, 보안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Q) 정보화 추진 계획상 2008년까지 보급할 예
정이라는데 학회의 일정과 어떻게 맞춰야 하나.
또 기존 학회 홈페이지와 연동에 대해서도 궁금
하다.

A) 학회 사무국 업무를 보면 대개 홈페이지 구
축, 회원 관리, 논문 투고 관리, 대회 진행 관련
등 비슷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학회 정보화 사업

은 이 같은 업무에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함
으로써 학회업무를 줄이고 학회간 네트워크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KISTI의
ACOMS를 활용하게 되면 DB 이전부터 유지보
수까지 모두 KISTI가 무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행 홈페이지 운영 사정상 ACOMS를 당장 도
입하기 어려운 학회도 있을 것이다. 도입 일정은
각 학회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Q) 예산 지원이 100억 원은 돼야 한 학회 당 2
천만~3천만 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적은 지원금에 요구자로 등의 통제는 많은 것
같다.

A) 예산안이 학회 지원 계획 입안자에 의해 결
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아직까
지는 학회 지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인식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액수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액
률로 보면 전년 대비 15~20%로 낮은 편은 아
니다.

Q) 우리 학회도 ACOMS를 사용하는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논문 투고를 위해 회원
가입을 다시 해야 한다. 가입시에 가입해야 할
정보도 굉장히 많다. 그게 정말 다 필요한 정보
인가?

A) 본인이 직접 정보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파일형태로 주면 KISTI에서 입력을 해준다.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사무국에서 자료 요청
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논문 투고할 때 넣을
게 많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필수 사
항 빼놓고는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
게 되어 있다.